

2021년 겨울호

제 105호 2021년 12월 20일
서울대 기독교교회 소식지

진리는 나의 빛

창간 1994년

+ 올해의 말씀 +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 때에 곧 강함이라 (고후 12:10)

발행인 • 박형대 / 편집인 • 이경건 / 학생기자 • 장동원 / 발행처 • 서울시 관악구 서림7길 대학촌교회 / TEL • 888-9111 / FAX • 888-9112



종강예배

서울대기독교인연합 종강예배가 12월 20일 월요일 저녁 7시에 서기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출된다. 이번 종강예배의 말씀은 조정민 목사(베아직교회)가 담당한다. 주제는 '신앙의 능력'이며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2-33절이다.

주요 기사 안내

1면 간사칼럼 ... 김순민 간사

2면 중앙위원의 글 ... 석익찬
진나빛 100호 기념문집 증정 & 독후감 모집 ... 편집부

3면 선교단체 소식
두루선교회 ... 김재영
ESF ... 김승찬

4면 부흥사경회 후기 ... 고성종, 박인하

5면 2021-2 서기연 부흥사경회 스케치

6면 주의은혜, 그리고 인도하심 ... 이수구 목사

7면 그리스도인의 사회 참여 ... 장효근
2022 신앙OT 준비기토팀 ... 김성은

8면 신앙과 학문 스케치

간사칼럼



들어가는 말

“누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였느냐? 태초부터 나 주가 거기 있었고, 끝날에도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이사야 41:4) 역사를 관통하며 기독교가 생명력을 유지해 온 비결은, 교리나 특정 종교 관습을 사수하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생명력의 비결은 바로, 세대를 관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증언해오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시고, 역사의 끝날에도 변함없이 이 세계를 책임지고 계시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증언을 담고 있는 ‘그릇’인 기독교 공동체 역시 어떤 형태로든 멸종하지 않고 지속될 것입니다. 이것은 희망을 논증합니다. 그리고 이 희망은 지금 시점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답이 없다며 손절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한국의 기독교를 사수해야 한다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 분열상을 마주하며 저는 위에서 말한 희망에 근거해 다음과 같이 외치고 싶습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다음세대를 위한 새로운 그릇(기독교의 문화적 형식)을 빚어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기독교라는 그릇에 실망했다고 해서 그 안에 담긴 복음까지 깨뜨려버리지 맙시다. 반대로 어그러지고 오염된 그릇 자체를 진리인 것처럼 사수하다 정작 복음을 잃어버리는 오류를 반복하지 맙시다. 잠시 숨을 고르고 교회사의 장면마다 다양한 그릇들을 통해 전수되어 온 ‘보배’, 즉 ‘예수님의 구원과 통치’ 그 자체에 집중해봅시다. 그때 희망은 우리에게 상상력을 허락할 것이고, 다음 세대와 급변하는 세상을 그분의 임재 앞으로 다시금 초대할 수 있는 새로운 기독교 문화를 키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가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 문화에 대해 고민해 온 바들을 나누고, 몇몇 제안도 해보고자 합니다.

1. 성경 읽기

한국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성경 사랑은 루터도 울고 갈 만큼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 밖은 물론 교회 안에서도 성경은 어렵고 이상한 책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오늘날 만연해 있는 성경읽기 문화의 부작용 탓이 크다고 봅니다. 먼저 설교나 큐티, 성경공부 등 기존의 성경읽기 방식은 성경을 파편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그 어떤 소설이나 영화, 웹툰보다 더 깊고 탄탄한 서사를 지녔음에도, 많은 사람에게 이해하기 힘든 파편화된 텍스트들의 집합소 취급을 받습니다. 두 번째, 설교 중심으로 성경을 접하는 문화는, 개인과 성경이 주체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성경은 ‘내 인생의 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경과 친해질 수 있도록 돕는 만화성경, 오디오 성경, 통독 프로젝트 등 다양한 대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동영상 플랫폼에서 시도되는 [The Bible Project]와 [공동체 성경읽기]의 시도를 설레는 맘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 ‘성경독서 문화’를 가꿔갈 것을 제안해봅니다. ‘설교를 듣는다’, ‘성경을 공부한다’는 말은 익숙하지만, ‘성경을 독서한다’는 표현은 낯선 것 같습니다. 이 제안의 핵심은 원래 성경의 1차 독자/청자들이 접했을 법한 방식으로 성경 66권의 각 텍스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장르에 맞는 읽기, 시대배경을 감안하며 읽기, 저자와 대화하며 읽기 등의 태도가 요구됩니다. ‘레위기’는 법전, ‘로마서’는 논문+편지, ‘아가서’는 노래가사집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경책과 설교의 무대에서 이들은 모두 ‘경전’이라

다음 세대를 위해 새로운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야 할 때

는 하나의 범주로 일반화되어 그 장르만의 독특한 감성과 목소리가 모두 증발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다양한 장르로 계시하셨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목소리를 최대한 존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다양한 모임에서, 66권 중 지금 나/우리의 여정에 필요한 텍스트를 ‘권 단위로’ 선정해 읽고 책나눔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배하는 그런 독서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전공자들은 가이드가 되어 균형 잡힌 해석과 나눔을 도와줄 자료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성경 독서모임을 통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하고 ‘내 인생의 책’으로 사랑하게 되는 세대가 세워질 것을 상상해봅니다.

2. 찬양

노래라는 영역에 은사가 없음에도, 제 신앙을 키운 것의 6할은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3 때 기숙사에서 MP3로 들던 Hillsong, 시와 그림, Avalon 등의 찬양들이 떠오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친구들과 찬양집회도 열어보고, 대학교 선교단체에서 많은 찬양예배들을 경험하고 여전히 참여하며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함께 부르는 찬양’ 문화에 대해 어떤 불편함이 조금씩 생겨온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한국 교회에서 불리는 찬양들을 보면, 경험적인 삶의 언어보다는 관념적인 가사들이 많고, 다양한 감정의 고백들보다는 기쁨과 감사의 선포가 많고, 기독교의 공적 희망과 책임으로 뻗어나가기보다 개인주의적인 감상에 머무는 가사가 훨씬 많습니다. 단적인 예로 저는 세월호 참사가 터진 후 한 동안, 혹은 우울증을 앓던 1년 간, 진심으로 부를 수 있는 찬양이 거의 없다고 느꼈습니다.

저의 고민은 이런 것들입니다. “찬양 가사들이 우리 삶의 경험을 반영하는 언어들이 될 수 없을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애가가 오늘날 CCM으로 더 보편화 될 수는 없을까?(such as 그때에 나는)” “심리적 평안과 감동에 그치지 않고, 고통받고 갈등하는 세상에 들려줄 수 있는 공동체적 노래들이 더 많아질 수는 없을까?(such as 의와 평화의 입맞춤)”

오늘 한국의 찬양 문화라는 그릇은 인생과 세상의 복잡함과 복음의 광대함을 다 담기에 너무 작고 획일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과 교회사에 기록된 다양한 맥락의 신앙고백들이 정말 외닿는 가사와 멜로디로 더 많이 재탄생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사 추가하기’ 문화가 활성화되면 좋겠습니다. 작곡은 어렵지만 가사 붙이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좋은 멜로디에, 새로운 가사를 붙여서 부르는 것은 사실 교회사에서 익숙한 전통입니다. 이런 DIY 찬양 문화가 좀 더 활발해진다면, ‘누군가 만들어 놓은 고백과 감정에 나를 맞춰야 할 것 같은 부담과 거부감’을 털어내고, 나/우리의 진심과 복음의 이야기가 만나는 화음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예배들이 많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3. 전도와 사회 참여

한국 사회에 안에서 기독교의 위상이 추락함에 따라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 문화 역시 위축되거나 기능장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 두 행동의 본질은 ‘증언과 초대’입니다. 세속사회와 가장 밀접한 자리에서 이뤄지는 초대인 만큼, 맥락에 따라 적절한 그릇에 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 점에 있어 전문가였습니다. 아테네에서 철학자들의 토론 광장에 선 바울은, 유대교의 언어가 아닌 헬라 철학과 문학의 표현들을 동원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결국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통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문화 사회에서 다문화 제자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던 바울은, 본질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담는 그릇의 종류와 모양을 그가 처한 문화적 코드와 청자의 필요에 맞게 다채롭게 바꿔갔습니다.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의 원조는 당연히 아뢰 하나님과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의 포교 활동’의 문은 닫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예수와 그분의 나라가 절실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이슈에 대해 들려줄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문제는 현장과 복음을 이어주는 새로운 그릇입니다. (ex. 비전과 하나님 나라, 예언자들의 정치 참여 모델 등) 바울의 모델, 예수님의 모델을 따라, ‘저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필요로 하는 언어와 행동으로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들이 많이 기획되고 시도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4. 교회 시스템

마지막 제안입니다. 한국의 기독교 공동체들이 영적 공급제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여전히 많은 곳이 영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가부장제와 관료제의 틀에 갇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권위를 갖는다는 것과, 그 권위를 구조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

다. 행정상 어느 정도 관료제적 요소가 필요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의 정신에 반하는 상명하복의 문화, 남성지배적인 문화, 해석독점의 문화 등을 해체해나갈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특히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더욱 절실한 변화입니다. 저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교회라는 ‘그릇’을 생각할 때, ‘솔직해져도 되는 안전한 곳’, ‘평등한 곳’, ‘세상에 대한 희망과 책임감을 배울 수 있는 곳’ 등의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가는 말

아브라함의 제단, 모세의 떨기나무, 출애굽 공동체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다니엘의 골방, 제2 성전, 그리고 빌립보 루디아의 가정집 ...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사람들이, 이 다양한 그릇들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십자가의 언약을 맞고 그 나라의 백성 된 삶을 배워갔습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가 한 세기하고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부흥기는 끝났고 온갖 비관적인 전망들이 우리 마음을 우울하고 조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였느냐? 태초부터 나주가 거기 있었고, 끝날에도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지금은 불안이 아니라 희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투쟁도 중요하지만 아름다움과 창조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보배를 전달해줄 새로운 그릇을 빚어야 할 사명을 지닌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각 세대별로, 각 단계별로, 함께 연대하여 그리고 각자 흩어져서 이제 박물관으로 보내야 할 옛 그릇은 무엇인지, 여전히 붙잡아야 할 보배는 무엇인지 많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세대에게 선물해 줄 새로운 그릇을 상상하고 제작해보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김순민(IVF 간사)

중앙위원으로 섬기는 마음



안녕하세요, 2021년 1학기부터 서기연 중앙위원으로 섬기고 있는 건설환경공학부 스마트도시공학전공 석사과정 석의찬 형제입니다. 학창 시절에도 글쓰는 데 소질이 없었던 제가 이 자리에 글을 쓰는 것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번 글을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면서 ‘좋은 글을 쓰기는 글렀구나!’라는 생 각만이 확실해지더군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처럼 연약하고 작은 능력도 주님이 쓰시면 능히 이루게 하심을 믿으며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위원으로 섬기는 마음’. 주제를 여러 번 바꿔쓰면서 도착한 종착점입니다. 기고를 요청해주신 기자님의 의도는 중앙위와 관련한 자유로운 글의 예시 중 하나였을 것이나, 제게는 계속해서 마음에 걸리는 주제였습니다. 꼬집었던 여러 글의 대부분은 중앙위를 하면서 느꼈던 일부분의 내용으로, 섬기면서 받았던 은혜들을 간증하기에 좋은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글을 쓰면서 왠지 모를 찢림이 계속해서 느껴졌습니다. 분명 받은 은혜이고 거짓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 말이죠. 반복되는 상황에 이런 마음을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조금씩 이유를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 비춰지는 섬기는 ‘행위’만 드러냈을 뿐, 마음에서 비롯된 중앙위원으로서 섬기는 ‘태도’는 숨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중앙위원 요청을 받았을 때 저는 그 자리에 부합하지 않은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 주님을 만나서 교제한 시간도 짧고, 서기연에 대해서 알게 된 것도 고학년이 되어서이며, 최종적으로 학부를 졸업하여 대학원

생이 되는 제가 그 자리에서 섬길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게 주님께서 코로나 유행 전 다녀왔던 대만에 서의 단기선교를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때 캠퍼스를 방문하여 전도했던 기억과 함께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서기연의 일에 ‘함께 짐 지는 자’로 섬기길 바라셨습니다. 결정적으로, 선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과 소통하여 지혜롭게 서기연 대표로 섬기려는 정명현 형제의 마음은 중앙위원으로 섬길 수 있는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글을 통해 고백하고 싶습니다. 다른 이들이 ‘중앙위원으로 섬겼다’고 말할 지금까지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그런 말을 듣기에 매우 부끄럽다고. 주님이 제게 원하셨던 ‘함께 짐 지는 자’가 되어 섬기지 못했다고.

먼저는 사역에 있어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다. 서기연 대표와 중앙위가 함께 서기연 사역을 진행하는 데 있어 업무 분담이 빈번하게 이뤄집니다. 대의원 회의, 개종강예배와 같은 행사에서의 방송 송출 혹은 회계만큼이나, 택배를 수령한다던가 공지글을 검토하는 사소한 일도 누군가의 섬김 없이는 이뤄지지 않습니다. 분명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경중을 가리며 대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비대면으로 전환되어 캠퍼스에 머무르는 시간이 적다 보니 귀찮음, 게으름과 많이 저울질했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아닌 자신을 중심으로 바라보며 임했던 것을 많이 반성합니다.

또한, 서기연을 위한 애통해하는 마음을 구하지 않았습다. COVID-19로 인해 우리는 개인의 삶의 측면과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에서도 큰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 서울대학교교회 학부예배에 속하여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어려움도 느낄 수 있었으며, 이를 돕기 위해 힘든 상황 속에도 노력하는 공동체의 모습도 보았구요. 중앙위원이 되면서 비슷하게 서기연의 많은 단체들이 같은 상황을 겪

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기연 아침기도회에서 시간 외에는 기도하지도, 또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습다. 이 자리를 통해 주님께서 저와 서기연에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느낄 수 있게 해주시려 했을 텐데, 바라고 구하지 않았기에 인지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대표님과 중앙위원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함께했고, 함께하고, 남은 기간에도 함께할 중앙위 모두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들입니다. 그들을 통해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 힘든 상황에 각자 지치고 힘든 부분도 많았을 텐데 묵묵히 그리고 순전히 섬겼습다. 동역자들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넘치는 만큼 그렇기에 최근에는 미안함도 함께 생기는 것 같습니다. 분명 더 적극적으로 임했다면 함께 즐겁게 나눌 수 있고 위로해줄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었는데, 조금은 사무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인 삶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갔던 순간들이 많이 반성이 됩니다.

어쩌다 보니 반성문이 되어버렸지만, 솔직한 제 마음을 드러내면서 제 마음이 ‘자기 비판’, ‘낙심’보다는 주님을 향한 ‘감사’와 ‘확신’으로 채워짐을 느낍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턱없이 부족하고 거짓된 모습이 많은 저를 쓰시고 또 이 자리를 빌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남은 중앙위원으로의 임기 동안 주님이 처음 제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고백했던 부족한 부분들을 기도함으로써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대표님과 중앙위원 그리고 모든 서기연의 지체들을 위해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석의찬(건설환경공학부 스마트도시공학전공 석사과정)

< 진나빛 100호 기념문집 증정 & 독후감 모집 >

안녕하세요? 진나빛 편집부입니다. 2021년 2학기를 마치는 모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

겨울방학 동안 어렵지 않게 읽을 신상서적을 생각하고 계시진 않은가요? 그런 분들께 진나빛 100호 기념문집을 추천드립니다. 1994년 창간한 진나빛은 하나님께서 서울대 캠퍼스에 부어주신 역사를 25년 이상 기록해왔으며, 지난 2021년 가을에 제100호를 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진나빛 기념문집은 진나빛의 발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기억하는 학생사역자, 기자, 편집인, 교수님, 간사님 등 많은 분들의 간증을 모은 책입니다.

진나빛 100호 기념문집을 원하시는 모든 분들께 증정해드리고자 하오니, 아래 연락처로 많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1. 진나빛 100호 기념문집을 증정하여드립니다. 책을 원하시는 분은 장동원 학생기자(010-2366-0036) 또는 이경진 편집인(010-6888-6108)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진나빛 100호 기념문집 독후감을 모집합니다. A4 1페이지 분량의 독후감을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드리며 진나빛 106호(22-1 개강호)에 독후감을 실어드는 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독후감은 2022년 1월 31일까지 장동원 학생기자(이메일: changdongwon@seoul.ac.kr)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편집부

선교단체 소식-두루선교회



안녕하세요 서기연 여러분, 두루선교회 대표 김재영이라고 합니다 :)

더운 여름이 지나고 시원했던 가을도 잠시, 이제는 찬 바람이 불어오는 캠퍼스에 하루빨리 학생들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학기를 보내고 있는 두루를 소개하고 최근 소식을 알리려 합니다.

두루선교회는 마28:18-20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부르셨음을 믿고, 각 사람이 인격과 삶의 모든 면에서 제자가 되어가도록 하는 사명을 가진 선교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신앙이 다져지기 좋은 캠퍼스에서의 제자훈련뿐 아니라 교회 사역, 학원(중/고등학교) 사역, 그리고 대학 졸업 후 직장에서도 계속해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협력하며 유기적인 사역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두루 캠퍼스는 2학기 개강 후 온라인 개강 기도회와 개강채플을 통해 지체들이 함께 모여 말씀과 기도로 한 학기를 준비하고, 함께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0월 중간고사 기간에는 온라인으로 모여 함께 공부하는 공부모임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얼굴을 맞대고 교제할 수는 없었지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또한 매주 소그룹별로 온라인 제자훈련 모임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을 배우며 훈련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개인의 삶과 믿음을 돌아보고,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주에 한 번 갖는 온라인 리더 모임에서는 교재를 통해 말씀을 배우고 각 소그룹 상황과 기도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두루선교회는 캠퍼스 사역과 연결될 수 있는 학원 사역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학원 사역은 주로 미션스쿨인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고양외고 사역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루캠퍼스 출신인 김석규 선생님께서 모교인 고양외고에 교사로 계시면서 학생들을 제자훈련을 통해 양육하며, 학생들이 졸업 이후에도 두루선교회에 접붙임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루 캠퍼스 리더들은 10월말부터 11월 초에 걸쳐서 미션스쿨인 고양외고에 방문하여 고1 기도모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고 제자훈련을 권면하였습니다. 고2, 고3 온라인 기도모임에도 졸업생들이 참석하여 말씀과 간증을 통해 제자훈련의 유익을 전하였습니다. 이후의 나눔 시간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나누어 주었고, 제자훈련에 관심을 보여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일산의 백신고등학교 근처에서 매주 금요일 하교시간에 맞춰 노방전도를 하며 학생들을 만나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두루선교회는 학원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열매 맺어주시기를 힘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학원사역을 하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세우는 일이 해산의 수고가 동반되면서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5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6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7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주님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양을 찾으며, 생명이신 예수님이 필요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 두루선교회의 one-man vision입니다. 이런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음에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그 동안 코로나로 인해 캠퍼스 지체들이 누릴 수 있는 교제와 공동체성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는 11월부터는 조심스럽게 오프라인 모임을 다시 회복하려 합니다. 11월에는 지부별 아웃팅과 소그룹 교제 모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프라인 교제 모임을 통해 캠퍼스 지체들이 더욱 하나되고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재영(물리전문 박사과정)

선교단체 소식-ESF 서울대캠퍼스



안녕하세요 ESF 서울대캠퍼스 대표 김승찬이라고 합니다. 약대에 입학하며 코로나 상황이 시작된지 어느덧 2년이 지났고 그 동안 비대면 상황에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직접 만나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교류하는 게 더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조금 바쁜 학기를 보내고 있어서 시험과 과제에 치여 살고 있다 보니 캠퍼스 구성원들과도 소원해지는 것 같아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대캠퍼스의 주축이었던 17학번이 대부분 졸업했기 때문에 캠퍼스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또한 대면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만큼 온라인으로 다른 캠퍼스와 연합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ESF 동작지구에는 중앙대, 서울교대를 비롯한 여러 캠퍼스 소속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교적 인원이 적은 캠퍼스와 연합해 '작은 별'이라는 모임을 만들었고 9월부터 정기적으로 온라인으로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상황이 지속되면서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이 줄고, 온라인으로만 진행하

다 보니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관계성이 많이 없어서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동역자들도 지치거나 힘들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구성원들을 돌아보고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상황에서 작은 별에 새대기가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모임을 지속하여 구성원들 간의 관계성이 강화될 수 있길 바랍니다.

11월이 되면서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대면 예배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축복하고 함께하는 것을 축하하는 알곡감사잔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관계성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ESF 공동체를 찾아온 새대기들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들이 동역자로 세워져서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연말에는 겨울 수양회를 준비하면서 내년에 들어올 22학번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대면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22학번들이 대학에 들어와 대학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소서. 22학번들에게 ESF를 알리고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ESF가 캠퍼스 복음화 운동에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승찬(약학과 18)

부흥사경회 후기



안녕하세요. 저는 CCC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학과 17학번 고성중입니다. 21개월 간의 병역 의무를 마치고 4학기 만에 복학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2019년 1학기 개강예배 찬양팀에서 드럼으로 섬겼을 때가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서, 이번에도 찬양팀으로 섬기고 싶다는 마음에 베이스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찬양팀으로 섬길 수 있었던 덕분에 좁이 아니라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저와 이름이 비슷하신 고성준 목사님께서 “Destiny”라는 주제로 3일간 은혜로운 말씀들을 전해 주셨습니다.

첫째 날은 인생의 살아가는 목적을 다시 발견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대학생이 된 이후로, 끊임없이 진로를 고민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다 보니 그냥 적당히 먹고 살 정도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학업이나

인간관계에서도 불만족스러웠던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왜 인생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는지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내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저를 둘러싼 불만족스러운 현실과 제 연약함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계획에 소망을 두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둘째 날은 요즘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고민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상당히 도전적이었고 희망적이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전도하기 어렵다’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 ‘도시화로 인해 선교적 삶을 사는 진입장벽이 낮아졌다’는 목사님의 말씀은 굉장히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과거에 1년간 CCC 대표를 하면서 갈수록 전도하기 어렵다거나 캠퍼스가 영적으로 위기라는 생각은 많이 해봤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현장 한가운데 있다는 생각은 미처 못해봤던 것 같습니다. 제 안에 막연하게 스며들어 있던 영적 패배주의를 회개하고 사 고의 전환에 눈 뜰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시대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셋째 날은 청년세대가 한국 교회의 유업을 잘 이어받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었습

니다. 저 역시도 기성 세대의 업적을 부정하고 한국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기 바빴지만, 믿음의 선배들이 물려주신 신앙의 유산에 감사했던 적은 전무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 민족에 복음이 전파 되는 것을 허락하셨고, 믿음의 선배들을 사용하셔서 찢어지게 가난해서 먹을 게 없던 상황에서도 전도와 선교에 힘쓰며 신앙을 물려주셨습니다. 이제는 청년세대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과 모든 것을 바쳤던 믿음의 선배들의 유업을 잘 이어받아, 민족 복음화와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해 나갈 차례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 청년들이 기성 세대처럼 나라와 민족을 섬기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흥사경회는 제가 잊어버리며 살아갔던 신앙들을 다시 일깨워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찬양팀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제 삶을 다시 돌아봤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기연 지체들과 함께 캠퍼스와 선교단체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다시 캠퍼스 복음화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비전이 저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부흥사경회를 참석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후기를 쓰다 보니,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기도할 수 있는 서기연 지체들이 있다는 사실이 참 감사했습니다. 지난 학교 생활을 돌아보면, 서기연이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기에 때로는 지치고 넘어쳐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서기연 지체들과 서기연을 섬겨주시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서기연을 통해서 캠퍼스와 교회와 이 땅 위에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고성중(사회복지 17)

부흥사경회 후기

상자를 벗어나라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월에 입학한 자유전공학부 21학번 박인하라고 합니다. 가슴 설레하며 입학했던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2학기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네요. 대학에 들어오면서 학업과 진로,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그중 가장 걱정되었던 것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선배들과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요. 기도의 응답을 해주셨던 것인지 하나님께서 바로 서기연에서 진행하는 새내기 신앙오터를 접하게 해주셔서 많은 위로와 용원을 받으며 대학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과 동료들을 만나고 섬김을 받아서 저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던 차에 부흥사경회가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현장 자막 담당으로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섬김의 기회 주심에 감사하면서도 저 때문에 방해가 되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또한, 자막을 신경 쓰면서 말씀에는 정작 집중하지 못할까 걱정도 했는데요 그것이 무색하게 정말 은혜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화면으로만 봤었는데 준비에 참여하고 직접 현장에 가보니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고 묵묵히 준비해주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깨닫게 되었고 제가 정말 귀한 곳에 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와닿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예배도 한동안 비대면으로 진행돼서 함께하는 예배와 찬양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혼자 화면 앞에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부흥사경회 기간이 제가 한참 전공 진입 신청을 준비하며 매우 피곤할 때였습니다. 몸과 마음이 걱정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이런 저에게 부흥사경회에서 듣게 된 말씀은 그동안의 걱정을 말끔히 씻어주는 약과 같았습니다. 부흥사경회의 주제는 ‘데스티니’로 요한복음 8장 31~32절의 말씀을 목사님께서 다뤄주셨는데요 진로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고민하던 제가 정말 진리로 자유함을 얻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다르시겠지만 저는 목사님께서 상에서 빠져나오라고 하신 말씀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진로를 생각하며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현실적으로 대충 타협하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많이 괴로웠는데 말씀을 들으며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신뢰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미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저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지 않고 제 머리로 한계를 정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상자 안에 제한하는 그런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도 미리 마음속으로는 안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 생각을 고집하면서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응답하셨고 그 순간 너무나도 신기하게 제 안의 걱정과 불안이 모두 잠재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진로를 택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진 못했지만 모든 것이 주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주님이 저의 모든 선택에 함께 해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덕분에 지금도 불확실할 가운데 주님의 변함없으신 약속을 믿고 걱정 없이 나아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부흥사경회에 참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흘러넘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치유 받을 수 있었고 또 믿음의 현장으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선교에 대한 말씀을 나누셨는데 역사적으로 세계의 무대에 올려졌던 나라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 선택하신 나라들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그저 이스라엘을 주인공으로 바벨론과 같은 이방 국가들을 악의 도구로만 생각했던 저에게는 정말 상자를 다시 한번 깨게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한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로마 제국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항상 일하셨고 변화시킬 대상을 선택하셨던 것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맡은 역할은 하나님께서 무대에 올리시는 대상을 인식하고 주님이 그리시는 변화에 참여하는 것, 즉,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부흥사경회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자신감을 얻었던 것처럼 믿음의 동역자이신 여러분들도 겪는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항상 함께하시며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 있음을 기대하며 기쁨과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와 추운 날씨에도 건강 잘 챙기시고 주님과 교제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매일매일 되시기를 응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인하(자유전공학부 21)

2021-2 서기연 부흥사경회 스케치



부흥사경회 포스터



간사님 기도



간사팀 찬양



부흥사경회 썸네일

고성준 목사 약력

- 서울대학교 수학과 및 동 대학원 졸
- UC 버클리 수학 박사(Ph.D)
- 대전침례신학대학교(M.Div)
- 현 수원하나교회 담임목사
- 현 컴미션(Come Mission) 국제 이사
- 저서 《데스티니 : 하나님의 계획》



단체사진



고성준 목사님 설교



축복



송출팀



찬양팀



대표기도

주의 은혜, 그리고 인도하심



나는 서울대학교 출신도 아니고 이 대학에서 공부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하지만, 나는 서울대학교를 사랑하고 이 대학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이 대학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한 적도 있고 그리고 이 대학의 동문

들과 교제를 가져왔다. 그리고 가끔 서울대학교 학생이나 출신자들을 보면 나는 동문처럼 반가워했다. 시간이 흘러도 이 관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이 대학을 짝사랑해 왔을지도 모른다.

언젠가 일본의 북해도에 있는 나의 사역지인 삿포로 국제 그리스도교회에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서울대학교 YWAM의 동아리가 단기선교를 오고 싶다는 말을 전해왔다. 그 해 여름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이 팀을 기쁨으로 맞이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들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했지만, 서울대학교에서 온다는 말에 그렇게 기쁘게 맞이했던 것이다. 그들은 그해 삿포로에 왔고 나는 그들과 주안에서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는지 모른다.

그러면 내가 왜 서울대학교를 이처럼 사랑하며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

지금부터 그 스토리를 잠시 나누고자 한다. 나는 젊은 시절 나의 형님의 소개로 대학춘교회를 알게 되었다. 그 당시의 대학춘교회에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은 계셨지만, 교회건물도 없었고 잘 조직화된 모습도 아니었다. 그저 조그만 집의 거실에서 10명 남짓한 분들이 모여서 주일에는 예배를 드렸고 예배 후는 식사를 하고 둥그렇게 앉아서 성경 공부를 했다. 나는 처음 예배에 참석했던 때부터 그 분위기가 참 좋았다. 특히, 나에게서는 다 낯선 분들이었지만 거기에 모이는 분들은 오랫동안 만났던 사이인 것처럼 내게 관심을 가져 주셨다. 그들은 마치 친형제자매들처럼 나의 말을 잘 들어주고 격려해 주셨다. 후에 알게 되었지만 그분들은 서울대학교의 동문들로서 신앙과 인격적으로 아주 성숙하셔서 늘 겸손하게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던 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그렇게도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매일 아침 새벽기도회로 모여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다. 나도 주일 예배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형님과 같이 가능하면 새벽기도회에 나가려고 노력하였다. 모두들 전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마다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며 '주여, 이 캠퍼스에 모인 자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다. 나는 이 대학교 학생도 출신도 아니었으므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랐지만, 주위분들의 틈에 끼어 서울 대학을 위해서, 특히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색한 느낌이었지만, 그것도 매일 그리고 모임 때마다 기도하게 되니 서울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졌다.

이렇게 신앙 생활을 시작한지 일년이 지난 1976년 12월 25일의 크리스마스는 내게 있어서나 교회적으로도 아주 특별한 날이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고, 또 교회적으로는 개척이 된 후 처음으로 세례자가 탄생되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나는 대학춘교회의 제1호 세례교인이 된 것이다.

그리고 나는 세례를 받은 지 얼마되지 않아서 주께 헌신을 하게 되었다. 대학춘교회는 매월 25일 밤이 되면 철야를 하면서 서울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다. 이 모임에는 이복영 권사님(후에 장로님

으로 임직을 받으셨고 수 년 전에 주의 품에 가셨다) 이란 분이 늘 중심에 계셨고, 또 다른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오셔서 기도회를 인도해 주시곤 하셨다. 이분들은 서울대학교의 선교를 위해서 참으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이셨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들이 인도하는 철야에 참석한 나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느꼈다. 그날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 권사님께서 내 곁에 오셔서 기도를 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 분은 날 위해 기도를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다고 하시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해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길 원하신다고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전해주셨다. 이는 나의 믿음 생활에 큰 도전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이때부터 나는 하나님께 나의 장래를 위해서 심각하게 기도하게 되었다. 물론 그 일 이후에도 나는 여러 날 동안 방황과 의심, 그리고 갈등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아래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행20:24).'

주의 부르심에 더욱 순전하게 응답할 수 있기를 갈망하면서 신앙 훈련을 받게 되었다. 그 후 더 많은 영적 훈련을 찾던 중 YWAM의 DTS(Discipleship Training School)를 알게 되었는데, 그 곳에서 나는 사역자로서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훈련을 받게 되었다. 이 훈련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곳 리더를 통해 대학생 사역을 하도록 인도하셨는데, 바로 그곳이 서울 대학교였다. 서울대학교의 간사로 임명을 받았을 때, 나의 머리속을 스쳐가는 것이 있었다. 바로 정확하게 6년전 대학춘 교회에서 신앙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어른들 틈에서 서울대학교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기도했던 것이었다. '주여, 서울대학교의 캠퍼스에 있는 젊은이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게 하옵소서!' 사실 6년 전에 서울대학교의 선교를 위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면서도,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군대에 다녀오고 하면서 옛적에 기도했던 것을 까마득이 잊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간절한 기도를 진지하게 듣고 응답하고 계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매주 학생회관의 서클룸을 중심으로 모여서 형제자매들을 양육하고 함께 기도하며, 또 모임 전에는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찬양을 하면서 전도하는 사역을 했다. 이러한 사역은 그리 간단한 사역은 아니었다. 그 당시 나는 신학교에 다니고 있었으므로 시간적으로 쫓기고, 또 고정적인 수입도 없기에 차비와 식비를 감당하기도 늘 벅찼다. 그래서 늘 필요를 위해 기도해야 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에서의 사역은 늘 즐겁고 행복했다. 그렇게 3년이란 세월이 훌쩍 지나갔다. 왜 그렇게 즐겁고 행복했을까? 그 이유는 단 한가지였다. 나를 여기에 부르시고 세우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었음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 나는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하심으로 일본의 최북단 북해도에서 25년이란 세월을 보내면서 선교사로서 일본인 현지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는 사역을 했다. 언어도,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행동양식도 달랐다. 그래서 어떤 때는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길다면 긴 세월

동안 주의 일을 잘 완수할 수 있었다. 나를 이토록 오랫동안 이국의 땅 북해도에서 버티게 했던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나와 가족을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Calling)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확신이 많은 모양의 시련과 고통을 감당케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얼마 전 일본에서 돌아온 후에, 30여 년 전에 모임에서 함께 했던 몇몇 형제자매들의 소식을 접했다.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감사한 것은, 그들이 믿음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교수로, 사업가로, 음악목사로, 작곡가로 이 사회에서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많은 이들에게 주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다. 특히, 얼마 전에 만난 서울대학교의 박 모 교수는 한국 갠립학술상을 수상할 정도로 이 분야에서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내게 '형! 나는 요즘도, 예전과는 다른 방법 일지는 몰라도, 캠퍼스 안에서 나의 연구실을 중심으로, 열심히 연구활동을 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 라는 것이었다. 학생 때처럼 주께 대해 열정이 식어지지 않은 것을 보며 정말로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뻐했다.

주께서는 서울대학교를 위해서 우리를 여러 방법으로 여러 모습으로 부르신다. 어떤 사람은 학생으로, 어떤 사람은 직원으로, 또한 어떤 사람은 동문의 가족으로도 부르실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주의 부르심에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뜻이 계시어서 우리 나라에 서울대학교를 세우시고 일들을 해 오시고 또 하실 놀라운 일들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를 통해 계속 주님의 이름과 그 나라가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할렐루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전 4:1,2)

Let a man so account of us, as of the ministers of Christ, and stewards of the mysteries of God. Moreover it is required in stewards, that a man be found faithful.

이수구 목사
前 OMF 일본 선교사
現 일본복음선교회(JEM) 대표

그리스도인의 사회참여

옥상, 여의도, 그리고 캠퍼스



(서로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세 가지의 큰 단락으로 나누어 글을 적습니다. 마음은 앞서는데 글재주는 미천한지라, 같은 단락 안에서도 통일성이 영 엉망입니다. 이런저런 자기 얘기 늘어놓기 좋아하는 복학생 선배가 의식의 흐름대로 이야기한다손 치고, 너그러이 읽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정적이고 순수한 스무 살 신입생이던 2017년 봄,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진나빛에 글을 올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졸업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지금의 시점에서, 아끼는 서기연 지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다시 한 번 글을 쓸 기회를 얻어 정말로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옥상

<내가 만난 하나님>에서는 저의 중학생 시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월 15만원이 드는 영어학원을 계속 보내야 하는 나 마느냐를 가지고 부부싸움을 해야 하는 형편, 유충주점과 당구장이 있는 구석진 시멘트 상가건물 5층에 위치한 집. 그런데 그 건물 옥상에서 스스로를 비판하던 중에,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절대자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나에 대한 사랑을 드러냈는데, 그 사실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자연스럽게 고민이 이어졌습니다. 저의 내면을 지배하고 있던 자기연민, 막연한 분노, 내일에 대한 두려움 따위의 것들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게 되자,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일하다가 목숨을 잃었는데도 정당한 법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가 뉴스에 너무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마침 1980년대에 활동하시던 인권변호사 분들의 사례를 영화 등의 매체로 접하게 되어, 나도 그 직업을 가져서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과 쪽으로 공부 머리가 그래도 좀 있는 것 같으니, 서울 소재의 이름 들어 본 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현실적인 목표로 하여 어찌어찌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사회 참여의 관계에 대한 무슨 대단한 이론 따위가 있었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의도

그로부터 거의 10년이 지났습니다. 오랫동안 존경해온 신앙의 선배이자 <진리는 나의빛> 편집인이신 이경건 형(제)님의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한글 파일을 여는 지금, 유리창 건너로는 국회의사당과 KBS건물이 보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깐' 하나로 인권변호사를 꿈꾸기 시작했던 중학생은, 수많은 변주를 거쳐 모 대선 후보의 캠프에서 나름 중직을 맡은 서울대생이 되었습니다('수많은 변주'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저랑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도록 하어요. ㅎㅎ).

참 아이러니하게도, 요즘만큼 '그리스도인의 사회 참여'라는 주제에 대해 관심을 적게 둔 적이 없습니다. 그 이전에는 레위기에서 말하는 희년제도가 어땠고, 소선거에서 드러나는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이 어땠고 하는 등의 내용을 탐구하고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어떻게 하면 후보의 낮은 인지도를 끌어올려서 대권 궤도에 안착시킬 수 있을까 하는 등의 정치공학적인 고민들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무게중심이 "하나님 - 나 -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 쪽으로 확 쏠렸지 싶습니다. 이런저런 사람들과 밤낮으로 부대끼는 곳인 만큼, 나는 경험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시야의 가장자리를 스쳐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어린 딸 두 명을 집에 두고 주말에 비상회의에 소집된 워킹맘 팀장님의 초조한 마음이라던가, 공약 발표 영상의 썸네일을 급하게 수정해야 해서 밥을 못 먹은 스무 살 자원봉사자의 배고픔 같은 것들 말입니다. 위대하고 비장한 임무보다, 매 순간 순간 그런 어려움을 헤아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닌가 합니다.

양당 거대 후보들에 비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캠프입니다만, 이 안에서조차 적지 않은 '정치질'과 불협화음이 존재합니다. 다른 팀의 공로를 빼앗아서 후보님이 계신 채팅방에서 자기 것 인양 자랑한다거나, 유능한 인재를 자기 부서로 데려오기 위해 물밑작업을 한다거나 하는 식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1. 생존하면서도, 2. 물들지 않는 것이 매일의 기도제목입니다.

참, 이걸 좀 씩씩럽고 혹여나 읽으시는 분들이 시험에 드실까 봐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얼마 전 대선캠프의 실세라고 할 수 있는 분과 단 둘이서 술을 한 잔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 출신이신데다가, 언론·재계쪽 인사들과도 두루두루 친한 분과 깊고 진솔한 대화를 나눴기에 뭐라도 된 듯 양 뿌듯해져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

고 시편을 묵상하는데

"너희는 힘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시편 146:3)

라는 구절이 마음 한 구석을 때리더군요. 그 아저씨는 절대로 절대로 하나님이 아닌데, 어느새 그 비슷한 위치에 두었나 봅니다.

그리고는 잠을 청하는데, 이 건물에서 여기 사무실이 유독 쓰레기가 많아서 너무 힘들다고 아침에 하소연하시던 청소노동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뇌리를 스쳤습니다. '힘있는 고관'에게 목을 매며 것처럼 되고 싶어하는 삶을 계속 살다보면, 아마도 이런 목소리가 점차 희미해져서 결국에는 뇌리에 스칠 일도 없겠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므로 차별없이 평등하게 대하라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라고 여기저기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만, 아는 만큼 살아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듯 합니다.

#캠퍼스

청소노동자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올해 여름 우리 학교 기숙사에서 업무 중에 사망하신 한 청소노동자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돌아가신 그 노동자 분은 사실 선교사 출신이십니다. 해당 사건을 두고 일부 언론과 인터뷰를 하였던 아내 분은 남편 분과 함께 중국과 세네갈 등지에서 선교활동을 하셨고, 한국으로 돌아와 부부가 같이 서울대에서 청소노동자 일자리를 얻어 생계를 유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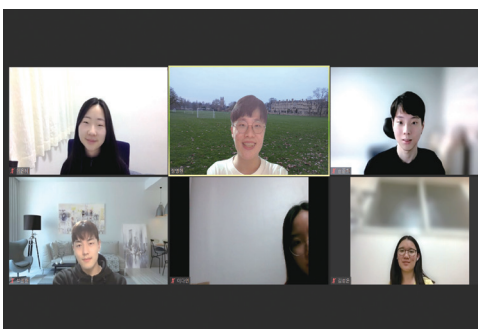
돌아가신 청소노동자의 '정체'가 다름 아닌 선교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금,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이 조금 다르게 받아들여지시나요? 왜 우리 서울대 캠퍼스 어디에서도, 그 분에게 간증을 해달라고 마이크를 건네 드리는 경우는 없었을까요? 하물며, 기독교 모임에서 삶 나눔을 하며 고충을 토로할 만한 자리를 그 분에게 단 한 번도 마련해드린 적이 없을까요?

선교단체, 단대기연, 과기독 등을 포함한 서기연 '고인물'인 제가 아마도 이 질문에서 가장 자유롭지 못한 사람 중 한 명일 텐데, 훈계하는 어조로 들리신다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우리네 신앙의 가동범위는, 이 캠퍼스 내에서 과연 어디까지입니까?

장호근(사회교육 17)

2022 신앙OT 준비기도팀

Beloved, 새내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제가 서울대학교 합격을 확인하고 기뻐한 것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입학한 지 일 년이 거의 다 되어가고 내년 신앙 OT를 준비하고 있으니 참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기연 모든 지체께서 올 한 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 신앙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지만, 그것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닐 것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닥을 찾는 듯 끝없이 신앙이 떨어지고 있을 때 서울대학교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가득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서울대학교라는 곳에 이단이 많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서기연을 비롯한 믿음의 공동체 이야기는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캠퍼스가 믿음의 전쟁터로만 보였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동역자에 대한 생각은 더더욱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칠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왕상 19:18)

하나님께서 서울대학교라는 곳에 믿음의 동역자들을 미리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계속 기도하던 중 페이스북을 통해 서기연 신앙 OT를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인지 아닌지에 대한 믿음 반, 의심 반의 마음으로 OT에 참가했습니다. 걱정과는 달리 정말 좋은 믿음의 선배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낮을 많이 가렸음에도 선배들께서 많

이 말을 걸어주신 덕분에 신앙 OT도 즐겁게, 기분 좋게 참여한 것 같습니다. 같은 조 선배들과 여러 번 애프터를 가지면서 선배들과도 더 친해졌고, 여기서 알게 된 선배들을 통해 여러 선교단체에도 가보고 신앙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배들을 통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고 제 신앙이 더 성장할 수 있을 환경을 마련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이번 신앙 OT 준비기도팀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단순합니다. 제가 신앙 OT에서 얻은 것이 정말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제게 좋은 사람들이 되어준 선배들처럼, 후배들에게 나도 좋은 사람이 되어주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서기연 지체들과 함께 신앙 OT를 위해 기도했고, 주제 말씀과 주제 문구를 정했습니다. 22학번들을 위한 이번 신앙 OT 주제 문구는 'Beloved', 주제 말씀은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 2:10)

주제 문구가 정해진 다음 날, WELOVE 찬양팀에서 곡 'Consistent Love'를 발매했습니다. 시기 좋게 발매된 찬양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정말 22학번 친구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예비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22학번 새내기 친구들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힘든 환경 속에서 수험생활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2학번 친구들에게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며 지친 마음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주제 문구와 말씀에는 우리 새내기 친구들에게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22학번 친구들에게 함께하기를, 그리고 22학번 친구들을 위한 신앙 OT가 잘 준비되고 진행되기를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서기연 모든 지체와 서울대학교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김성은(수리과학부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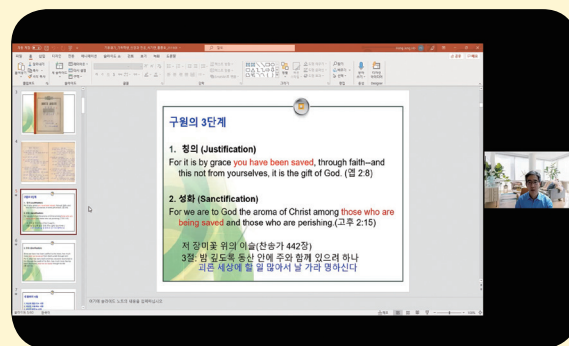
신앙과 학문 스케치

대면으로의 회복이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서울대학교 기독교수협의회 주최로 11월 1일, 3일, 5일 총 3일간 2021 신앙과 학문 행사가 개최되었다. 기독교인 교수님 세 분께서 연사로써 귀한 말씀을 나눠주셨다. 첫째 날에는 홍종호 교수님(환경대학원)께서, "기독교 학생은 기후위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라는 주제로, 둘째 날에는 현택환 교수님(화학생명공학부)께서 "과학자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마지막 날에는 주우진 교수님(경영학과)께서 "그리스도인의 재정관리"라는 주제로 강연해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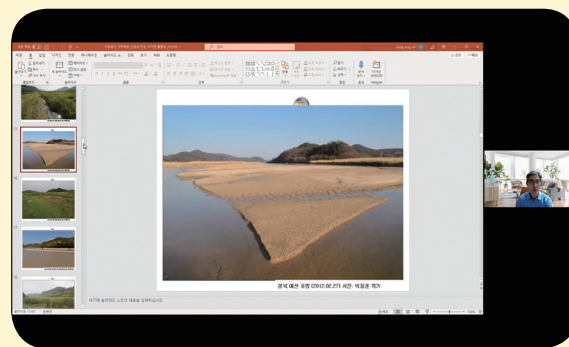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여 진행되었던 이번 행사에는 매 회 50명 내외가 참석하였으며 많은 질의응답이 이어지기도 했다. 새해에는 더 많은 행사가 대면으로 개최되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서울대 기독교인들이 교류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신앙과 학문 포스터



1. 월_홍종호 교수님 강연 장면 1



1. 월_홍종호 교수님 강연 장면 2



2. 수_현택환 교수님 질의응답



2. 수_강의장 전체



2. 수_현택환 교수님 질의응답



3. 금_사회보는 정명현 대표



3. 금_주우진 교수님 질의응답



3. 금_주우진 교수님 강연